

현대석유화학 합성고무 어디로 가나?

LG화학, 호남석유 인수 적극적이지 않아 ... 2004년 하반기에 가능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핵심쟁점이었던 폴리머 내수영업팀의 분리인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합성고무 플랜트의 인수과정은 2004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석유화학의 합성고무 플랜트는 SBR(Styrene Butadiene Rubber), NBR(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BR(Butadiene Rubber), NBR/VP-Latex로 구성돼 있다.

현대석유화학 관계자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의 플랜트 분리인수 과정에서 Monomer 및 Polymer의 분리협상은 순조로운 반면, 합성고무 플랜트는 수익성 문제로 인수논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합성고무 플랜트 인수 논의가 어려운 것은 현대석유화학이 보유한 플랜트들이 각각 2개씩 있어 분리협이가 수월한 반면 합성고무 플랜트는 1개만 보유해 분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성고무는 주원료인 Butadiene 및 SM(Styrene Monomer) 가격이 바닥을 칠 때는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Butadiene과 SM의 시황이 좋아 수익성이 좋지 못해 양사가 인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현대석유화학이 SM과 Butadiene을 자가소비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현대석유화학의 SM No.1, No.2 플랜트는 SM을 소비하고 있는 LG화학 측에서 인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호남석유화학이 합성고무 플랜트 인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성고무 중 타이어용 SBR은 중국 상무부로부터 2003년 9월부터 앞으로 5년간 반덤핑 관정을 받았고 합성고무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자가소비가 늘고 있어 시장전망이 밝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대석유화학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합성고무 플랜트의 인수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밝히면서 2004년 하반기가 되어야 합성고무 플랜트의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석유화학은 “합성고무 플랜트 이전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어 인수시기를 밝힐 수 없으나 사업부 최종 분할기한인 2004년 말에는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양사가 합성고무 플랜트 인수에 관망적인 인상을 주었다.

현대석유화학의 분리인수는 10월1일 폴리머 내수영업사원들의 LG화학으로의 분리배치로 인수가 가시화됐으며, Monomer 및 Polymer 수출팀도 연내에 분리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수일정은 협의되지 않았다.

현대석유화학의 합성고무 생산능력은 SBR 6만톤, BR 4만톤, NBR 1만6000톤, NBR/VP-Latex 400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성고무 시장은 금호석유화학이 리드하는 가운데 현대석유화학이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1/05>